

축 사

경애하는 전 세계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UN 베삭데이 기념식을 이곳 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발전 이면에 자연환경의 파괴와 살상무기 증가, 인종 갈등, 종교 간의 전쟁 그리고 세계경제 불안으로 지구촌 인류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들 모두의 불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시방삼세의 모든 삼라만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온 우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불제자들은 상좌부와 대승의 구분을 떠나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고통에 대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합쳐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 여러분! 이번 제7차 UN 베삭데이를 통해 부처님의 뜻이 세계인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지구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자비와 나눔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발원으로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끝으로, UN베삭데이 기념식을 준비하신 태국 국민과 일본 영우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 2554(2010)년 5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